금주 법구

제자의 덕행이 스승을 닮았다면
한 치도 앞을 못 본 소심한 제자이고
빼어난 덕행 스승을 능가하면
참으로 뜻을 따른 스승의 제자일세.
-경덕전등록-

현대불교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3월 14일 수요일(주간) 제310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탑골공원과 불교 인연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에 소재한 탑골공원의 자리는 본래 조선시대의 원각사 절터였다. 원각사는 조선 6대 세조의 명에 의해 1464년 고려때부터 내려오던 흥복사의 옛터를 넓혀 건립한 사찰로 조선 초기에는 조계종 본사로 번성하였다. 그러나 연산군과 중종때 절을 폐지하고 건물을 헐어버려 폐허가 되었다.

그 후 1897년에 이곳에 공원이 지어지면서 그 이름을 원각사 탑의 이름을 따서 백탑(파고다)공원이라 명명했고, 1991년부터 탑골공원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현재 공원 경내에는 국보 제2호인 원각사지 십층석탑과 보물 제3호인 원각사비가 있다. 탑골공원은 터와 이름, 그리고 전해지는 문화유산에서 보듯이 '불교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탑골공원 주변 역시 '불교벨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총무원과 조계사가 인접해 있고, 3·1운동을 주도했던 만해 한용운 스님과 백용성 스님의 정기가 서린 대각사가 자리잡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안국교차로와 탑골공원이 이어지는 인사동길이 정비되면서 이 일대에 다양한 불교문화가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처럼 불교역사가 면면히 이어져온 탑골공원이 서울시에 의해 민족의 성지로 복원된다. 이와 함께 공원 이용객의 대부분이 노인들인 점을 감안해 공원 인근 종로구 경운동 옛 통계청 건물에 대지 972평에 지상 3층 규모의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짓고 무료급식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서울시는 복지센터를 운영할 위탁체 모집을 지난 5일 마감했다. 신청 현황을 보면 불교계의 조계종 복지재단과 진각종 복지재단을 비롯해 사랑의 전화, 연세대학교 등 10개 법인이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탑골공원 성역화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조계사 성역화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교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만약 불교계 법인이 복지센터 운영체로 선정된다면 종로일대는 명실상부하게 불교복지와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탁체 선정은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다. 다만 성역화의 근본 취지와 그 정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그 정신을 가꾸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재산이기 때문이다.

한 명 우 〈취재1부 기자〉

장-군-죽-비

◇흔들리는 불교, '화엄학림결사'로 바로 세운다. 이느 시대건 佛法 그 자체는 흔들림이 없었다. 다만 불자들이 흔들렸을 뿐. (9면)

◇교계 첫 대안학교인 '작은학교' 개교. 우주를 머금은 아침이슬처럼 온 세상을 품에 안는 '큰 학교'로 발전하기를…. (11면)

◇광우병이 부른 육식 공포, 사찰음식으로 날려버린다. 사찰음식 전문점, 사찰음식 서적에 이어 TV에까지 초록 식단 점령. (14면)

◇만공 스님의 선학원 설립, 일제에 맞선 항일 운동. 예나 지금이나 본분사에 충실하면 그것이 곧 세상을 제도하는 일. (16면)

동학사 사하촌 정비 불교문화센터 6월 개원

음식점 등 경내지 밖 이전 수행환경권 회복 '모범'

지자체의 관광개발사업의 가속화 등으로 개인소유의 땅은 물론이고 장기임대 형식의 사찰 토지에서까지 수행환경을 해치는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이 마구잡이로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계룡산 동학사(주지 일연)가 경내지의 계룡휴게소 등 음식점 10곳을 정비해 사하촌 정비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동학사는 최근 일주문에서 1km 안쪽 5백여평의 부지에 40여년간 영업해 온 계룡휴게소 등 3곳의 음식점을 경내지 밖으로 이전시킴으로써, 5년만에 경내지내 10개의 민가를 모두 정비했다.

99년 울산 석남사가 부지 매입을 통해 상가개발 및 식당건물의 건축계획을 저지하고, 지난해 김천 직지사가 일주문앞 음식점 신축을 법적(전통사찰보존법의 '수행환경 보호' 취지)으로 저지한 적은 있지만 일주문 내의 대대적인 사하촌 정비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94년 비로봉 아래 남매탑 근처에 모여 있던 무속인들을 정비한 것을 시작으로, 경내지내의 음식점들을 차례로 이전시킨 동학사는 3년여의 법적 공방 끝에 이달 초 계룡휴게소 등 음식점의 등기 이전을 마무리했다. 동학사는 이 건물들을 개조해 오는 6월 여름불교학교 및 도서관, 영상실, 불경서당, 서예실 등을 갖춘 친환경적인 불교문화센터를 개원할 예정이다.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일연스님은 "비구니 교육도량인 동학사의 수행환경을 지키기 위해 사하촌 정비가 불가피했다"면서, "주민들과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원관리소와 협의해 그들이 경내지 밖의 마을에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효과가 컸다"고 말했다.

1987년부터 야기된 온천, 식당, 숙박시설 등 위락시설 조성에 따른 수행환경 침해사례는 모두 33건. 이중 분쟁이 종결된 곳은 절반이 채 안된다. 더구나 집단 상가지역의 경우는 거의 정비가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위원회 관계자는 "수행환경 보존을 위해 경내지의 사하촌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어려울 경우 사하촌 문화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찰 소유의 상가를 장기에서 단기임대로 전환하고, 건전한 물품을 팔지 않을 때는 불이익을 주는 계약조건을 삽입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주=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문 없는 문, 나옴도 들어감도 없다"

9일 통도사 백련암에서 열린 '원산스님의 무문관 3년 결사 회향법회' 장에 주인공인 스님은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스님의 회향법문을 듣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1천여 사부대중은 이심전심으로 스님의 투철한 수행정신을 기리고 죽림굴을 향해 지극한 삼배를 올리며 스님의 수행력을 따르겠다고 발원했다.

본지 취재진이 조그마한 창문을 통해 공양을 받고 들어가는 스님의 도습을 단독 촬영했다. (관련기사 23면) 양산 백련암=고명배 기자

조계종 환경위원회 출범

초대위원장 성타 스님

불교계 최초의 공식 환경(종령)기구인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7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초대 위원장에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대자연환경보존회 이사장)을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장 인터뷰 3면)

이날 발족식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보선·대둔사 주지) 선출, 위원(스님 10명, 재가자 3명) 및 전문위원(10명) 등에 대한 위촉장 수여, 총무원장 격려사, 위원장 인사말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곧바로 제1차 회의가 이어졌다.

환경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사찰 오수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환경친화적 불사 지침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사업계획안을 이달 말 제2차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결의했다. 또 재가 위원을 배려해 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3인 이내로 둘 수 있도록 종령(현재는 1인)을 개정하고, 실무간사 약간명을 두도록 했다. 김재경 기자

평불협 등 13개 단체 대북지원사업자 선정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을 하고 있는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와 한국JTS 등 13개 민간단체가 올해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돼 활동을 벌이게 됐다.

통일부는 8일 "17개 단체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신청, 이중 13개 단체를 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지원단체는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와 한국JTS를 비롯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북한동포돕기 제주도민운동본부, 새마을운동중앙회, 월드비전, 유진벨, 평화의 숲, 천주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이웃사랑회, 한민족복지재단 등이다.

당국자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되어야 정부로부터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오는 10일 신청을 마감해 늦어도 4월초까지는 기금지원대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一心佛院
각종 불사/불교 용품 일체
大佛, 小佛, 불단, 탱화, 단청, 탑집
02-725-2030/725-2040

올 초파일 봉축표어 '마음청정 나라청정'

연등축제 4월 29일

봉축위원회(집행위원장 원택 조계종 총무부장)는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 표어를 '마음청정 나라청정'으로 정하고 7일 봉축행사 지침서와 캐릭터 문양집, 2종의 포스터를 전국의 사찰에 발송했다.

봉축기간을 4월 15일부터 5월 1일까지로 정한 봉축위원회는 각 사찰과 지역봉축위원회에서 △전통등(燈) 문화의 계승 △자비의 사회적 실천 확대 △연등축제의 정착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지역의 연등축제와 제등행진은 4월 29일 12시부터 밤 10시까지 조계사 앞 우정국로와 동대문운동장~종로1가 구간에서 실시한다.

정성운 기자

중국 하남성 불교유적 순례

선불교의 본산을 찾아서

현대불교는 중국 선불교의 맥을 직접 느끼게 하고자 '중국 불교문화 기행'을 기획하여 삼국지의 무대이기도 한 하남성 지방의 유구한 역사도시 낙양, 정주, 개봉 등에 산재해 있는 불교유적을 찾아갑니다.

영화 '소림사'의 무대로 더욱 잘 알려진 소림사(少林寺)에서는 인도의 고승 보리달마가 9년간 면벽좌선을 통해 중국 선불교를 진작시켰던 역사의 흔적과 무술시범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국 3대 석굴 중의 하나인 용문석굴에서 만나는 10만 개의 불상을 보시면 엄청난 규모에 저절로 탄성이 쏟아질 것입니다. 중국 최초(68년)의 사찰인 백마사(白馬寺)에서는 원나라 때 만들어진 중국의 국보 18나한상을 친견하실 수 있습니다. 청빈한 관리로 중국에서도 추앙받고 있는 포청천의 고향인 개봉(開封)에서는 '천수천안관음보살상'으로 유명한 대상국사(大相國寺)도 참배합니다.

◇중국 3대 석굴 중의 하나인 용문석굴

소림사·용문석굴·백마사·대상국사

◇일정: 5월2일(수)~5월6일(일) (4박5일)
◇참가비: 73만원(공항세 비자비 등 포함. 단 여권수속비는 별도)
◇접수및문의: (02)737-7055(담당: 이소희)
◇접수기간: 4월17일(화)까지(단, 여권소지자에 한함)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출발시간과 집합 장소는 추후 공고합니다.

●주 최: 현대불교신문사 ●주 관: 아주세계여행사
●후 원: 중국하남여유집단유한공사

since1991 KASAN INSTITUTE OF BUDDHIST CULTURE 지혜와 자비로 열려있는 문

한국불교진흥을 위한 五大主要事業 불교대백과사전편찬·교육·학술·출간·교화 진흥사업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원장 지관스님 서울·종로·동숭192-10 ☎765-9602~3

●불교대백과사전 편찬 사업을 후원하거나,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伽山佛敎大辭林 회원'으로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학술 및 출판·교화사업부

● 창간의 목적
佛敎原典專門學林 三學院은 佛陀의 慈明과 傳燈의 修行 傳敎을 정의적으로 계승하는 扶宗樹敎의 金塔.
● 교육과정
● 불교원전연구과정
· 선전강독 「景德傳燈錄」
· 한국불교원전강독 「白雲和尙語錄」「黃覺國師語錄」
· 범어불교원전연구 「俱舍論」
● 불교어학연수과정
· 불교한문강독 「韓國佛敎全書」「黃覺國師語錄」
· 범어연습 I·2
· 티베트어연습 「고전티베트어」
● 개설학술과정
· 불교문화설의 이해
○ 상위한성 완수교육 일반수강생은 수시 접수 가능

한국불교 중흥의 초석이 될 가산불교대사림 회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불교대백과사전 불사도량은 방원하니다!!
불교대백과사전 불사 동참 방법
● 연재 1·2·3권 출간, 4권 근간 제15권 년차 속간 예정
● 전집에 2,180,000원 / 예약회원은 20%할인하여 1,750,000원(우편료포함)입니다
● 예약회원은 가산불교대사림 전권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으로 위의 금액을 3개월~60개월로 분할 입금하시면 됩니다.(1000부 한정 예약)

■ 가산학파편 「伽山學報」 창간~제8호, 제9호~근간

■ 「한국승려명총서」 총간
· 「校勘譯註歷代高僧碑文」 상편 /고려편1/고려편2/고려편3 /고려편4/ 조선편
· 「한국승려명총집」(조선조 - 근현대)

■ 아연관 저
· 「韓國佛敎所依經典硏究」
· 「南北傳六部律藏比較硏究」
· 「伽倻山海印寺誌」· 「信行日錄」· 「要經序說」· 「四集私記」· 「曹溪宗史」

■ 세계사 및 개설서집
· 「韓國佛敎文化思想史」(상·하)
· 「세계속 한국불교의 고유개념과 수행개념」
· 99년 2월의 인물 에드스님 초대 「세계속에 빛나는 위대한 한국인 에드」
· 「자운대사」 자료집